

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, 바레인과는 특허심사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“이번 특허심사관 파견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도출된 대표적인 대 중동 외교성과로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”면서

“앞으로도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뿐만 아니라, 카타르,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,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체계를 현지에 전파함으로써, 중동지역에 ‘지식재산 한류벨트’를 구축하고,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아랍에미리트연합 파견 특허심사관 기념사진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정대순 (042-481-5036)
		담당자	서기관	황상동 (042-481-8659)

